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 尹 국정과제 '산업은행 이전' 속도

박 당선인 "산은 부산이전 비릇
금융중심지 조성에 박차" 포부

산은 수장 선임 속전속결 전망
'노조 반대 해결' 최우선 과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산업은행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정부가 밝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은 부산과 인근 지역 등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발전시켜 금융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도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잠잠해졌지만 선거가 마무리되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박형준 당선인은 후보시절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딱 한 조각이 아니라 딱시루를 주는 균형발전이다"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전과 혁신인재 양성 등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 것이라던 말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지역 혁신형 균형발전에 대한 윤 정부의 확고한 국정방향을 부산이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금융 중심지 부산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시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 효과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울경 생산유발효과가 2조 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511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686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은행 수장도 빠르게 선임해 부산 이전 과제에 호흡을 맞출 것이라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윤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수장을 선임한 뒤 산업은행 회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은행장은 금

융위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후임 인선이 단행될 수 있다.

현재 산은 회장에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의 이름이 폭넓게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산은 노조가 지방행을 반대하고 있어 신임 산은 회장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윤 정부의 핵심과제들이 하나씩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산업은행 부산이전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당초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수장이 결정되면 부산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한 1년 제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발표
피조사자 방어권도 강화하기로

금융당국이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조사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다.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다.

우선 금감원의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된다.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또 앞으로는 회계감리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문답서 열람 시점을 기존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은

서면화된다.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팩스 등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리위 안전에 기재하는 위반근거와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 달 중 외부감사 규정 변경 예고 후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 부실징후 조기포착, 예방기능 강화"

김태현 예보 사장, 창립 26주년 기념사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나서고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등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에 나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금융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보가 부실이 오기 전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그동안 부실이 발생한 이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 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 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김 사장은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가 출범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보호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하나은행, L/G 발급 업무 비대면 간소화

'e-L/G 발급 서비스' 신설

하나은행이 지난해 7월 출시한 기업 외환 디지털 플랫폼 'Hana Trade EZ'에 비대면 L/G 발급 프로세스인 'e-L/G 발급 서비스'를 신설했다.

e-L/G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 및 EDI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L/G 발급 업무가 Hana Trade EZ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계약, 운송 증빙서류 제출 ▲L/G 발급을 위한 영업점 내점 ▲선사 앞 실물서류 제출 등의 업무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됐고, e-L/G 발급으로 인한 L/G 분실리스크도 제거돼 기업외환 거래 손님의 편의성이 증대됐다.

또한 e-L/G 발급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발급된 L/G를 영업점 방문 없이 Hana Trade EZ



플랫폼을 통해 출력할 수도 있다. 이외 영업점 업무 처리의 신속성 개선과 함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등 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e-L/G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언택트 시대에 변화하는 기업 손님들의 니즈를 충족하게 됐으며, 영업점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우리금융그룹 산불피해 지역주민 대상 정서안정 치유 프로그램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정서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형 산불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 산불 진화 요원들이 산림 속 치유 활동을 통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의 프로그램 기간동안 심리상담, 숲길 트래킹, 건강 스트레칭 강습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산림보호 교육과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실습도 받을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신한은행 "모바일 해외송금시 3달러 드려요"

솔편한·Wise 해외송금 이벤트

까지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해외송금 수요증가에 맞춰 신한은행 모바일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솔편한·Wise 해외송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솔편한·Wise 해외송금 이벤트는 신한솔(SOL)에서 솔편한 해외송금 또는 Wise 해외송금으로 1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3개월간, 3달러(USD)를 지급하는 이벤트로 오는 8월 31일

또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두투어 상품권 2백만원권(1명) ▲모두투어 상품권 1백만원권(5명) ▲모두투어 상품권 50만원권(10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여름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 가족·지인을 만나러 가는 수요를 반영해 이번 모바일 해외송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고 빠르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